

말씀의 샘

하나님의 지팡이 <출애굽기 4:1~4>

출애굽기 3~4장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놀랄게도 이미 80세인 모세의 인생에 새로운 시즌이 열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40세의 젊고 지위가 있는 상태에서 부르지 않고 80세의 늙고 그동안 배운 지식이 퇴색해서 가장 어눌할 때 부르셨을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준비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17년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의 상황이 80세 모세와 같이, 깨지고 실패하고 자신 없는 모습이라면 하나님이 이제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일하실 차례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2017년의 새해 첫날, 육신적으로는 희망이 없어 보이는 모세에게 열어주신 그 새로운 시즌을 우리에게도 활짝 열어주시길 갈망하며 오늘 이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과 대화의 시작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요구하신 행위는 “신을 벗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그 당시 주인이 노예에게 요구하는 행위였고 종이 주인 앞에서 신을 벗는 것은 최고의 경외심을 표현이었습니다. 80세의 힘이 빠진 모세가 아직도 벗어야 할 것이 남았나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4장에서 모세에게 물으십니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답변합니다. “지팡이입니다.” 참 어리석은 질문과 답입니다. 왜 하나님은 당연한 질문을 하시고 뻔한 답을 들으시려고 했을까요? 스스로에게 자각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대화법중에 하나입니다. 창세기 32장에서 야곱과 씨름을 실컷 하시고는 ‘네 이름이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이라고 당연한 대답을 하였습니다. 이 또한, 야곱에게 자신의 존재를 자각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손에 든 지팡이를 무엇이나고 물으신 의도는 “네가 가진 그 초라한 지팡이가 전부잖아?” 라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늘 보던 익숙한 지팡이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말입니다. 늘 익숙해져있던 우리 모습에 대해 인식의 세계가 열려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존재를 잊고 삽니다. 모세가 볼 때, 갱 말라버린 보잘 것 없는 지팡이를 보면서 ‘내가 이런 걸 들고 다니고 있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랜 광야생활로 인해 먼지가 자욱이 앉고 온통 굴곡과 상처투성이인 거친 지팡이를 보면서 무능하고 불품없는 자기를 보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모세가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초라하기 짝이 없는 소유물, 이리나 맹수가 나타나면 그 지팡이로 양을 지키고, 먹고사는 생계수단, 모세가 몇 십년간 한 번도 떨어져본 적이 없는 그런 물건, 어쩌면 모세 자신의 모습인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대화법을 싫어합니다. 내 무능함을 알아가기까지 자존심이 허락지 않고 나의 초라함을 직면하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의 무능, 자기 초라함을 철저히 인정하고 자각하고 알고 받아들이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모세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땅에 던지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놀랄게도 그것이 뱀이 되었습니다. 이는 모세가 가진 초라한 지팡이에 비해 하나님의 능력은 지극히 크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시려는 메시지가 또 있었습니다. 모세의 분신과 같은 익숙했던 지팡이가 악의 상징인 뱀의 모습으로 바뀔 수 있음을 시사해주신 것입니다. 모세는 깜짝 놀랐습니다. 본문에서는 “모세가 피하매”라고 나와 있습니다. 광야에서 뱀을 여러 차례 만나고 수차례 잡기도 했을 터인데 왜 이렇게 놀랐을까요? 단순히 뱀이라서가 아니라 늘 자기가 분신처럼 아끼고 의탁했던, 가장 가까운 자기의 지팡이가 뱀이 되었다는 것에서 깜짝 놀란 것입니다. 모세도 평생 모르고 자기 옆에서 안고 자고, 늘 자기 몸을 의탁했고, 늘 가까이에서 함께 했던 것, 그것이 이런 악의 형상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9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꾀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시기전, 자신의 모습을 철저히 자각시키십니다. 완전히 말라버린 불품없는 모습의 지팡이를 보게 하실 뿐 아니라 그것을 땅에 던질 때에 더 추악한 모습을 일깨워 주십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내 무능한 모습뿐만 아니라, 내 악한 모습까지도 철저히 발견케 하십니다. ‘내가 어느 정도는 알았는데 이 정도는 몰랐구나. 주여 난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철저히 보게 하십니다. 이것이 새로운 시즌을 위해 하나님이 우릴 사용하시기 위한 과정이요 절차인 것입니다. 나의 무능한 모습, 나의 죄악된 모습을 철저히 자각하지 못하는 사람을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무능과 우리의 악함을 알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2017년 한해를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출발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실존을, 연약함을, 추악함을 발견하게 만드는 그 지팡이는 무엇인지를 한번 묵상하며 적용해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손에

쥐고 있고 또 오랜 시간동안 가깝게 있었지만 바로 그 익숙함이 악의 통로가 될 수 있고, 또 그걸 통해 부족한 나를 발견하기 원하시는 그 지팡이를 말입니다.

본문을 통해 한 가지 힌트를 생각할 수 있다면, 나와 늘 함께 있다는 것이며 나와 가까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의지하고, 가장 가까이 함께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 친구, 심지어는 가족일수도 있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좀 더 가진 것, 돈, 명예, 학벌, 재능, 달란트... 모든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금 붙잡고 고민하면서 하고 계신 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지팡이이며 악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겨우 마른 지팡이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붙잡고 쓰셔야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옛 습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 고정 관념과 편견 등도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지팡이일 수 있습니다. 내 생각, 내 주장이 그것일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이 항상 맞는것은 아닙니다. 다 말들은 옳은데 그런 분들끼리 부딪히면 교회에서 싸움으로 발전합니다. 악의 통로가 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자기 생각과 주장이 많은 분들이 일은 똑 부러지게 잘하는 반면에, 항상 부딪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 합니다. 하나님 말씀도 자기 생각에 안 맞으면 버리고, 자기 좋은 쪽으로만 해석하려 듭니다. 과연, 여러분은 어떤 지팡이를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땅에 던지십시오. 그리고 떨어져서 하나님의 눈으로 철저히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나의 연약함, 나의 죄인됨을 더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출애굽기 4:4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뱀의 꼬리를 잡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꼬리가 잡히면 본능적으로 물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합니다. 내 생각과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다시 잡은 지팡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4:20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때부터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전에는 모세의 마른 지팡이에 불과했지만 자기의 모습을 철저히 발견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취한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 라고 하나님이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사용하셔서 모세에게 새로운 시즌을 멋지게 여셨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사업이,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이 가진 그 무엇이든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이 과정을 밟으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2017년 1월 1일 주일예배 이 강화 목사

2017. 1. 1 주일 예배

찬양과 기도 ----- 찬양팀 (인도-구수진 사모)

대 표 기 도 ----- 이 학순 집사 (다음주 : 황 우경 집사)

헌 금 ----- 특송 : 조 선희 전도사

성 경 봉 독 ----- 시편 11:4~7

말 씀 선 포 ----- 이 강화 목사

코람데오

축 도

두란노 소식 ----- 4면에 있습니다

예 배 안 내

주일 예배 : 주일 오후 2시

수요 예배 : 수요일 오후 8:00

금요 예배 : 금요일 오후 8:00

말씀의 전파와 영성의 생명적 성장을 위한
DURANNO CHURCH
두란노 교회

